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센터, 10일 지식재산권 법적 규제 세미나

[2011-06-10]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센터(이하 ICR·소장 유진희)는 10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정부 및 국내외 법학자, 법무법인과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각국 경쟁당국 지식재산권(IPR) 라이선싱 가이드라인의 비교 및 종합정리’를 주제로 지적재산권의 법적 규제 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국 경쟁당국의 IPR 라이선싱 가이드라인을 비교하면서 세미나 시리즈를 종합 정리한다.


미국 콘스탄틴 캐년 로펌의 케린 코플린 변호사, 중국 인민대 멩 얀베이 법학과 교수, 법무법인 세종의 김현아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의 박환성 변호사, 노상섭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등이 주제 발표한다.

또 고충곤 LG전자 IP센터 상무, 김봉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 흥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행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고려대 ICR센터는 그동안 ‘지적재산권 라이선싱의 법적 규제’란 제목으로 지금까지 3회의 세미나를 열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출력하기

 닫기